

원형 외에 따로 짓는 것은 복제... 복원 아니다

본지의 석굴암 관련 특집기사(제 847호 보도)에 대해 한국미술사학회 원로이자 석굴암 연구 권위자인 강우방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반론을 보내왔다. 강우방 명예교수의 주장(14면)과 강우방 명예교수의 석굴암 관련 해설(16~17면)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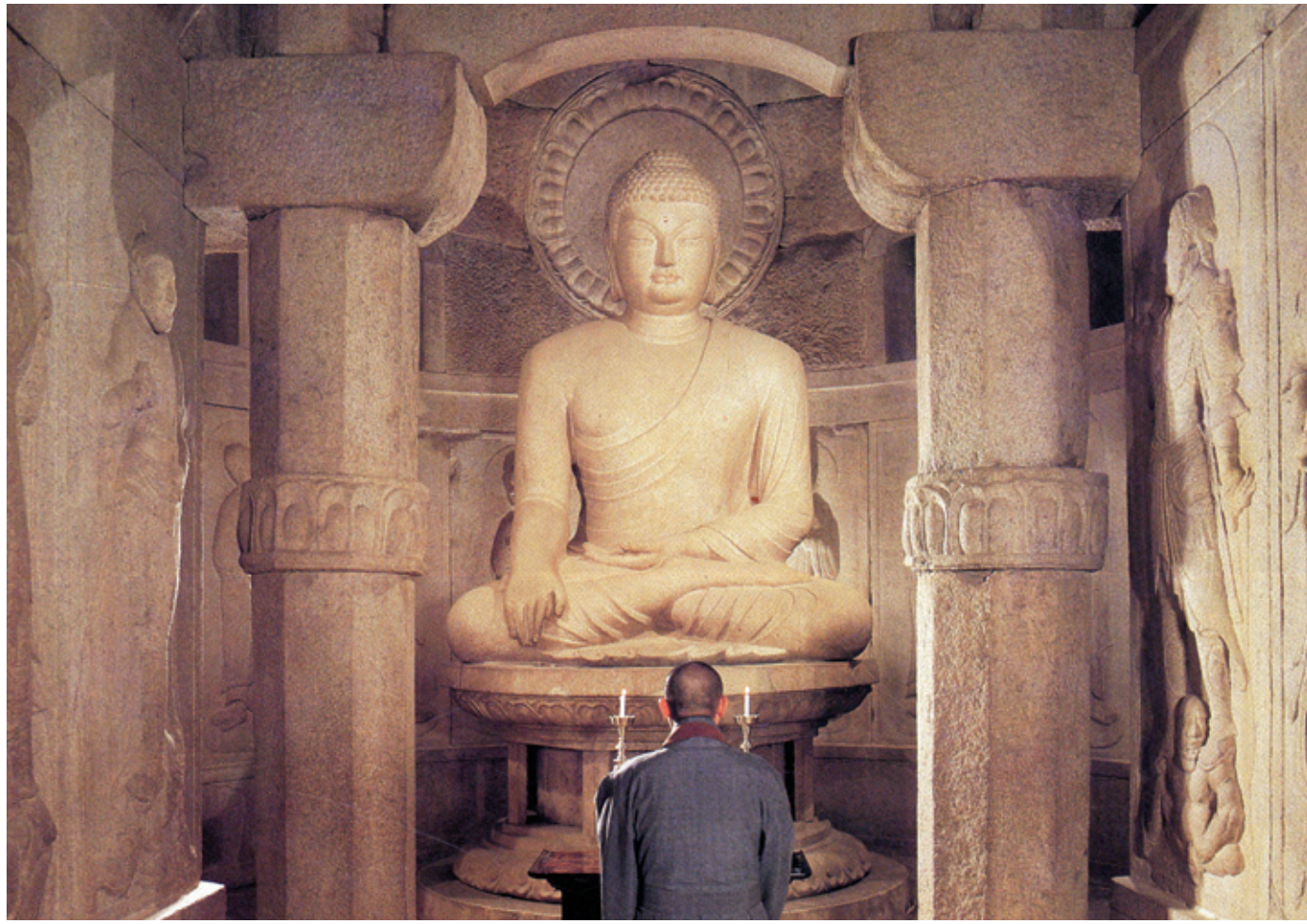
석굴암 복제가 10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들고 나와 정부와 불국사-석굴암, 그리고 방사성폐기물장소를 유지한 경주시까지 힘을 합쳐 나서며 찬반의 논쟁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거기에 학자들 까지 가세하여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어느 난세에도 그렇듯이 곡학야세(曲學阿世: 자기가 배운 것을 올바르게 펴지 못하고 그것을 굽혀가면서 세속에 아부하여 출세하려는 태도나 행동을 가리키는 말)하는 무리들이 나서서 오히려 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의 학문과 삶을 보면 평생 구차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석굴암의 위대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승려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시주금에만 눈에 어두워 있으니, 공무원들이라고 그 위대함을 알 리 만무하다. 만일 그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며 주장한다면 실명으로 그들의 평생 동안 살아온 곡학야세의 과정을 들어 단죄할 것이다.

문명대 씨가 현대불교신문에 쓴 기고문에서 1995년 석굴암의 복제품 제작을 처음으로 제기한 주인공임을 알았다. 즉, 1995년경 문명대 씨 주도로 복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불국사주지의 적극적인 호응 아래 김정기, 김동현, 정재훈 등 4명이 집행소 위원회를 만들어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가히 충격적이다. 그 위원회 가운데 3명은 미술사학자가 아닌 석굴암의 진가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석굴암의 가치를 왜곡시킨 사람이다. 결국 석굴암의 위대성을 절실히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셈이다. 그들은 왜 그런 무모한 일을 감행했을까. 모두 금전 때문이다. 그 일이 성사 되면 각각 복제과정의 큰 몫을 담당할 것이고 적어도 10년 동안은 엄청난 부(富)를 축적할 수 있다.

10년 전 복제문제에 대두됐을 때에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당시 3년 동안 밀실에서 작업이 이뤄진 후, 착공식을 1주일 앞두고 복제문제 기사를 읽었다. 필자가 소스라치게 놀라 조선일보에 반대 의견을 제기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많은 학자들은 필자의 글에 호응해 힘을 합쳐 주었고, 1년의 투쟁 만에 마침내 문화재위원회에서 복제



품 제작을 취소시킨 바 있다. 이상하게도 그 당시에는 문명대 씨가 찬성의 목소리를 그치지 내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문명대 씨는 전국의 문화재보수공사를 독점해 온 김홍식 씨와 함께 밀실에서 작업했던 것이 틀림없다. 하여튼 조유진 씨 등 최근에는 복제품 제작을 찬성하는 학자들이 하나 둘 본래의 모습을 나타내며 그 무리를 늘리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선 석굴암의 예술적 위대함을 모르기 때문이요, 다른 하나는 왜 석굴암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만들었는지 그 주변의 자연환경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다.

석굴암이 얼마나 위대한 예술품이며 우리나라 문화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무엇인지 논하고자 한다. 그것을 알면 문제는



자명해진다. 이 문제는 국가예산을 들여 공청회 같은,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작업을 할 필요도 없다. (15, 16면 참조)

복제는 석굴암 성소(聖所)에 대한 모독이다.

석굴암의 고차원적인 예술과 심오한 사상을 이해하면, 왜 복제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가는 자명해진다. 복제품 건립에 있어서 정부와 불국사-석굴암, 이를 찬성하는 학자들의 대변자인 문명대 씨는, 다음의 이유로 복제품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문명대 씨의 주장을 반박하기에 앞서, 용어부터 바로 잡을 것을 주장한다. 원형 외에 따로 짓겠다는 것은 복제품이지 제2의 석굴암이 아니다. 그리고 복제를 복원이라 말하지 마라.

“국내외 관람객의 불만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석굴암은 우리나라에서 예술과 자연이 어

파손이며, 만약 이 정병을 움직일 수 있다면 나를 바다 밖으로 내 던질 수 있으리라. 이때 파손과 그 무리들이 정병에 줄을 매어 온힘을 다하여 잡아당겼으나 그 정병을 움직일 수 없었다. 정병은 곧 석가모니이다. 정병에서 석가모니가 화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파손과 그 무리는 부동(不動)의 석가모니 세존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울린 가장 성스러운 장소이다. 세계적인 종교적 성소이다. 그러므로 관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물려오다면 오히려 제한해 줄을 서서 감상도 하고 경배해야 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불상인 목조 모전(夢殿)관음상은 보전을 위해 가을 한 달 동안 일반에 공개한다. 그래도 누구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 석굴암에도 하루 몇 명 이상은 안 된다는 제한을 뒤야 한다. 수 백명 학생들의 단체관람인 경우 제한하거나 줄을 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감상해야 한다. 또, 일정 기간을 정해 입장을 금한 다음 석굴암 내부에 통풍을 시킬 필요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영험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신도들의 원성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필자는 이런 말을 처음 듣는다. 석굴암이 세계에서 가장 영험이 있다는 것은 석굴암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것이다. 석굴암은 자력신앙을 옹변하는 불교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곳이지 소원을 비는 기복의 대상이 아니다. 영험을 바라거든 대구 팔공산 갖바위로 가라.

“똑같이 복원하고 완성도 높게 재현함으로써 최고의 예술적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문명대 씨는 똑같은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 아닌가. 복원과 복제도 구별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복제를 만드는데 무슨 예술적 기량을 발휘한다는 말인가. 그러려면 복제를 만들려 하지 말고, 석굴암에 견줄만한 기념비적 석굴사원을 현대적 해석을 가하여 창건하는 편이 좋다.

“화강암의 판석이 어느 때 무너져 내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현재의 석굴암은 앞으로 영원히 끄떡도 없다. 다만 8부중 가운데 석질이 좋지 않은 몇 개의 판석에서 떨어져 나가는 표면이 걱정이다. 그것도 보존과학적으로 검토하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복제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안전한 상태의 석굴암을 고의적으로 위험하다고 거짓말해서는 안된다. 아무 것도 모르는 대중은 정말 그런 줄 알 것 아닌가? 그런 험박적이고 선동적인 발언은 삼갔으면 한다.

“완성도 높게만 복원하면 100년 후에는 이 또한 문화재로 등록되기에 충분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복제품이 문화재로 등록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완전히 똑같은 복제품을 만든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최선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할 것은 뻔하다. 예술작품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는 이유는 그 예술품에 예술가의 영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제2석굴암은 환경파괴와 관계없는 석굴암 마당 아래 화장실 옆 계곡과 마당에 걸쳐 복원한다면 석굴암과 거의 동일한 환경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와는 전혀 무관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는다.

바로 그 장소에 지으면 지금의 석굴암은 원형을 잃는 것과 같다. 석굴암 본존은 향마촉지인(降魔觸地印)이다. 석가모니께서 정각을 이루려할 때, 악마 파손은 어둠(無明)을 좋아하는 까닭에 석가모니께서 정각을 이루면 세상이 광명으로 가득 차서 자기네들이 숨을 곳이 없어지므로 악마의 무리들을 이끌고 나타나 온갖 방법으로 석가모니를 죽이려 한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그 악마의 무리들을 물리치며 항복을 받고 동시에 정각을 이룬다.

바로 코 밑에 복제를 만들면 석굴암과 거의 같은 환경이라 말하니, 문명대 씨는 현재의 석굴암은 안중에도 없는가 보다. 그렇게 짓는다면, 현재의 석굴암은 자연과의 조화를 잃어 그 위대함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석굴암 본존의 종교적 의도를 무참하게 짓밟는 것이다. 문명대 씨는 악마 파손의 화신이고 찬성하는 무리는 그 수하의 병졸들인가.

“복제품 만드는데 과감하게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문명대 씨는 제2석굴암 건설을 복원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석굴암 복원이라고 해도 현재 복원은 다른 문제이다. 지금 존재하는 석굴암을 복원해야 한다. 특히 석굴암 밖의 원래 모습을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무슨 복원을 한다는 말인가. 복제품을 포장해서 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을 만든다고 과감히 매진한다 말인가. 문명대 씨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사로운 이런 일에 앞장을 서는가! 더구나 학자가 공무원과 승려들에 훨씬 앞서서 복제를 서두르는 까닭이 무엇인가. 학자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구태여 날카롭고 긴 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끝으로 조언을 한 마디 하겠다. 굳이 그토록 애타게 복제를 만들고 싶다면 불국사 넓은 경내에 만들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부(富)도 축적할 수 있다.



강우방 원장
일향 한국미술사연구원 · 이화여대 명예교수

강우방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1941년 중국 만주 안동에서 출생해,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고고인류학과를 수료했다. 일본 교토국립박물관 및 도쿄국립박물관에서 동양미술사를 연수한 그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68년 이래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과 학예연구실장 등을 역임하고 국립경주박물관장, 이화여대 미술학과 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 이화여대 명예교수, 일향 한국미술사연구원장이다. 저서에는 『미의 순례』 『원융과 조화』 『한국 불교조각의 흐름』 등 다수가 있다.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연구, 새로운 시각, 다양한 주제!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D.J. 김주파하나/김종욱 옮김/신국판양장/544쪽/25,000원

불교 철학의 역사 전체를 훑다 본연의 가르침에 따라 정리한 역사!

4 범화경의 성립과 배경

塚本啓祥 著 · 이정수 역/신국판양장/576쪽/27,000원

범화경 성립의 배경을 문헌학, 고고학, 미술사, 고문서학, 비평학, 고대외국어학에 의거하여 실증한 책!

2 한국의 불교의례 I

정각 지/신국판양장/460쪽/23,000원

한국불교에서 행해지는 의식 및 의례의 역사와 절차, 의미 등을 규명한 책!

5 성철선사상

도대현 지/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돈오돈수와 중도로 집약되는 퇴용 성철의 선사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한 최초의 책!

3 밀교학 개론

홍석 지/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밀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종합불교·현실불교로서의 밀교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책!

6 인도불교사

정순일 지/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인도 불교의 중요 불교교리와 인물, 핵심 개념과 경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7 주역선해 연구

청화 지/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명말 고승인 우익지옥이 『주역』을 고도의 불교사상으로 재해석한 『주역선해』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연 지/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붓다 당시 승단분열의 역사적 과정을 재바라다의 파법륜승, 파승가를 중심으로 객관적이면서 생생하게 추적한 책!

9 불성론 연구

최현민 지/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본성론적 불성 이해에 기반한 승주론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새로운 불성론과 수행론을 제시한 도겐의 사상을 궁구한 책!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신국판양장/416쪽/23,000원

불교의 수행론인 마음챙김과 한의학의 치유론인 사상의학 간의 다양한 융합과 그것이 가져오는 차별적 과를 규명한 책!

11 청송의 선과 철학

소광희 외 지/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신의 세계』라는 저서를 통해 동양적 사유의 결정체인 선과 서양철학의 회통을 추구한 청송 고형곤의 사유세계를 정리한 책!

인터넷 검색창에 **“붓다북”**을 검색해 주세요. **“붓다북”**에서 총서를 구입하시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붓다북 바로가기 QR코드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 www.unjusa.com